현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 EV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은 친환경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노조는 CEO의 고액 연봉과 기록적인 수익을 지적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만약 회사들이 임금 인상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하락하고 전기차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자동차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은 아니다. 미국에 관해 말하자면, 10일간의 파업은 경제에 손실을 줄 수 있다. "10억 달러가 모자라다.